

문자 표기의 형태론적 장치에 대하여

김유범(고려대학교)

문자란 본래 ‘기억 보조 장치(mnemonic device)’로 마련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언어의 모든 면을 상세히 표기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독자에게는 표기되지 않은 빠진 요소들을 채워 넣고 그것들을 본래의 순서대로 돌려놓는 것이 요구되었다. 꽤 정확한 음운론적 표시에 필요한 회화적 요소들이 적절히 존재했지만 그것이 결코 기록 체계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었다.

—Michalowski(2004)

1. 머리말

문자를 이해하는 것은 언어의 다양한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대부분의 언어들, 특히 지나간 시간에 존재했던 언어들은 문자로만 그 모습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자에 주목하고 그것이 적힌 표기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언어에 관심을 가진 언어학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진다.

본고는 문자 표기의 일반적 특성과 더불어 형태론적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문자 표기의 특성을 여러 문자들의 실제 쓰임을 대상으로 언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글(훈민정음) 표기에 나타나는 형태론적 장치에 대해 논의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15세기 훈민정음의 표기가 음소주의적 차원을 넘어 형태주의적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 문자 표기의 일반론

인간 지성의 훌륭한 발명품인 문자가 언어의 시간적, 공간적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기호 체계라는 점은 문자가 언어와 유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해 준다. 문자가 언어의 내적 구성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 변화가 저절로 문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지만(권중성, 1999) 대부분의 문자들이 특정 언어를 직접적인 표기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문자가 언어의 어떠한 요소를 포착하여 표기하게 되는가에 관심을 갖도록 해준다.


문자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장구한 시간 동안 문자는 일종의 진화를 거듭해 왔으며, 그 진화의 핵심은 문자라는 시각 기호가 언어의 어떠한 요소를 표기하게 되는가 하는 점이었다. 일반적으로 언급해 볼 수 있는 문자 발달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문자 발달의 단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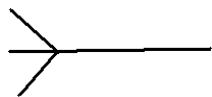


(1)은 초기의 문자가 언어의 내용인 의미를 직접적인 시각화 대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언어의 형식인 음성을 시각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의미가 시각화의 대상이었던 그림문자나 표의문자의 경우에도 문자의 사용은 ‘단어’라는 언어 단위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인지 체계에서 수행하는 대상의 개념화가 단어 단위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1) 문자 발달의 단계는 다양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김유범(2009c:159)의 내용을 가져왔다.

(1)의  전후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각화의 대상이 의미에서 음성으로 바뀌게 된 사실은 문자 발달의 역사에서 혁명적인 사건으로 평가되는데, 이른바 ‘레부스(rebus)’ 체계의 도입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하였다. ‘수수께끼 그림’이라고도 불리는 이 체계는 단어의 의미가 아닌 소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문자 사용과는 구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2)에 제시된 것처럼 수메르 어에서 각각 ‘화살’과 ‘생명’을 뜻하는 두 단어가 모두 [ti]로 발음되었던 까닭으로 ‘화살’을 나타낸 문자가 ‘생명’을 뜻하는 문자로도 사용된 경우나, 이집트 어에서 ‘귀’(mšdr)를 나타내기 위해 ‘여우 가죽 석 장’(𐎎 mš)과 ‘바구니’(𐎠 dr)를 나타내는 문자를 결합해 표현했던 경우가 이러한 레부스 체계의 실제적인 예이다.²⁾

(2) 가. 수메르 어 ‘화살/생명’(ti)의 표기 나. 이집트 어 ‘귀’(mšdr)의 표기






레부스 체계의 도입을 통해 인류는 단어문자에서 표음문자를 사용하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문자의 수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시각화의 대상이 의미에서 음성으로 바뀌게 된 사건은 언어 형식에 대한 흥미로운 관찰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서 이를 통해 언어가 실현되는 외형적 구조에 보다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언어의 외형적 구조에 대한 관심은 먼저 음절(syllable) 단위에 모아졌다. 수메르인들이 ‘발’(du)을 뜻하는 문자를 두 번 사용해 ‘*dudu*’라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던 사실이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수메르인들이 셈어로 된 이민족들의 이름을 적었던 경우나 아카드, 에블라 등 셈족들이 수메르인들이 만든 설형문자(cuneiform writing)로 자신들의 언어를 적을 때 음절문자 체계(syllabary)를 주로 사용했던 경우³⁾ 역시 ‘음절’ 단위의 친숙성과 실제성을 보여준다.

2) 이에 대해서는 Hudson(2000:356), 램조 로시(2005:17), Rossini(2005) 등 참조.

3) 이에 대해서는 Michalowski(2004:26) 참조.

한편, 상형문자(hieroglyphs)를 사용했던 이집트인들은 문자의 표음적 활용과 관련해 한 단어에서 자음들만을 취하여 적는 방안을 채택했다.⁴⁾ 본래 ‘갈래 위의 빵 덩어리’를 뜻하는 문자()가 세 자음 /htp/를 나타내도록 쓰이거나, ‘집’(*pa:ruw)을 뜻하는 문자()가 두 자음 /pr/을 나타내도록 쓰인 예가 그러하다. 한 단어에서 자음들만을 취해 문자를 표음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후에 이른바 ‘두음원리’(acrophonic principle)에 의해 첫 자음만을 사용하는 단계로까지 발달했다. ‘부엉이’를 뜻하는 문자()가 자음 /m/을 나타내는 표음문자로 사용되는 예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자음에만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언어의 외형적 구조에 대한 관심이 음절보다 더 작은 음소(phoneme) 단위에까지 모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처럼 문자의 역사에서 문자가 언어를 시각화한 방식은 그 대상을 언어의 내용인 의미에서 형식인 음성으로 바꾸어 발달했으며, 대상의 개념화가 단어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다가 레부스 체계를 통해 음성이라는 언어의 외형적 구조로 관심이 옮겨지면서부터는 음절 및 음소가 문자 표기의 기본 단위가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고대의 문자들은 물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문자들이 이와 같은 문자 발달의 단계 중 어디인가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인류 문화사의 큰 흐름과 관련해 확실한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까지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발달된 형식의 문자가 표음문자 중 알파벳과 같은 음소문자라는 사실을 통해 인간 언어의 시각화 방식의 합리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보게 된다. 일반적인 문자가 음성적 정확성을 기하는 발음 기호와 달리 언어 요소들을 서로 변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특정 언어들을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자의 사용이 정보의 효율적 선택이라는 인간의 인지 체계가 지닌 중요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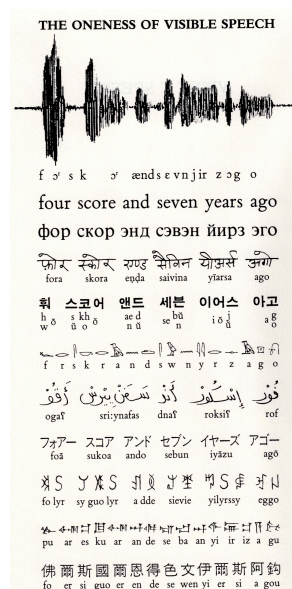
4) 이에 대해서는 Loprieno(2004:164) 참조.

3. 문자 표기와 형태론적 정보

‘목소리의 그림’이라고도 불리는 문자는 청각적인 말소리를 시각적인 도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언어의 형식인 ‘음성’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자는 표기 대상을 언어의 내용에서 형식으로 전환한 역사가 있고, 많은 문자들이 언어의 소리를 적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에서 보듯이 동일한 말소리를 적는 문자들은 무척 다양한 모습과 차원으로 말소리를 표기하게 된다.⁵⁾ 맨 처음의 국제 음성 기호와 같이 음성적 정확성을 표기의 생명으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맨 마지막의 음차(音借)에 사용된 한자의 경우처럼 음성적 유사성에 만족해야 하는 것도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문자들은 이 둘 사이의 어느 지점에선가 인간의 말소리를 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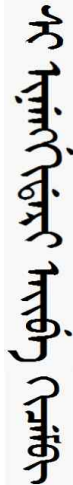
문자가 청각적인 말소리를 적는 시각적인 기호라는 점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문자의 쓰임을 살펴보면 문자가 표기하는 것은 단지 음성의 차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문자란 결국 그것을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사이의 고차원적인 소통이며, 그 소통은 언어의 표면인 음성에 대한 정보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언어적 정보라는 것은 음성을 기반으로 형태 및 통사, 그리고 의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문자 표기가 담고 형태론적 정보는 음성적 정확성 이상으로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문자가 이러한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문자 표기가 담을 수 있는 형태론적 정보



5) 사진은 DeFrancis(1989)로부터 가져왔다.

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문장에서 어떤 단위들이 단어에 해당하는지를 알려 주는 정보가 있을 수 있다. 단어가 대상의 개념화와 의미 전달의 기본적 단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형태론적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문자들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뒹으로써 단어 단위에 대한 형태론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 예로 왼쪽의 사진은 다음과 같은 만주어 문장을 표기한 것인데, 문장에서 단어들의 구분은 문자 표기 사이사이에 보이는 공백으로 표현된다.



[만 주 어] si inenggidari aibe kicembi? (청어노걸대 1:3a)

[한글주음] 시 이녕기다리 애버 키첨비

[언 해 문] 네 날마다 무어슬 공부하느다

[현대어역] 너 날마다 무엇을 공부하는가?

만주어의 2인칭 대명사(si)와 동사(kicembi), 그리고 명사(inenggi)와 조사(dari), 의문대명사(ai)와 조사(be)가 결합한 단위들을 각각 하나로 묶어 표기함으로써 표기된 문장에서 어떤 단위가 단어가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같은 표기 방식은 알파벳을 비롯해 많은 문자들의 표기에서 볼 수 있으며, 특히 오늘날 우리의 한글이 이러한 표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매우 친숙한, 그래서 너무도 당연한 표기 방식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언어의 중요한 형태론적 정보를 잘 전달해 주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사실을 한 번쯤 진지하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다음으로 단어의 어형을 알려 주는 정보가 있을 수 있다. 단어문자(logogram)의 경우 그것이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중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여기에 이른바 소리보조글자(phonetic complements)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소리보조글자는 메소포타미아의 설형문자, 이집트의 상형문자를 비롯해 여러 문자들에서 나타나는 표기 장치로서 우리의 차자표기에 나타나는 이른바 말음첨기자 또한 일종의 소리보조글자로 이해해 볼 수 있다.⁶⁾

(3) 가. 설형문자의 소리보조글자










나. 상형문자의 소리보조글자



다. 차자표기의 말음첨기자

千隱

(3가)에서 [an]은 본래 신을 뜻하는 단어(Anum)와 하늘이나 천국을 뜻하는 단어(Šamû)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단어문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처럼 [an] 다음에 [ú]를 소리보조글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 단어가 하늘이나 천국을 뜻하는 Šamû로만 사용되었음을 쉽게 알도록 해준다.

(3나)는 숨은 신 ‘아몬’을 나타낸 상형문자로 이때 이중자음 [mn]을 나타내는 문자() 아래에 [n]을 나타내는 단자음 기호()를 소리보조글자로 사용하였다. 본래 서양 장기관을 뜻하는 상형문자()가 여기에서는 이중자음 기호(biliteral signs)로 쓰였음을 소리보조글자()를 통해 알 수 있다.

(3다)는 고려시대 균여의 향가에서 ‘千’을 뜻하는 수사 ‘즈믄’을 나타낸 차자 표기로서 음독자 ‘隱’[n]을 사용해 이 단어의 어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말음 첨기는 한자의 뜻을 이용하는 훈독자 뒤에 한자의 음을 이용하는 음독자가 첨기된 것으로 이를 통해 훈독자의 형태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같이 소리보조글자는 단어의 어형 정보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문자론적으로 의미 있는 표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여러 문자들에서 단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나타내는 음성 기호를 보조적으로 사용했던 사실은, 문자 발달사에 투영된 인류의 공통적인 인지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문자 발달의 측면에서 본다면 표의문자(ideogram)에서 표음문자(phonogram)로 발달하는 과도기에 나타난 슬기롭고도 자연스러운 문자 운용 방안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김유범, 2010:511).

문자 표기가 지닌 형태론적 정보는 표기된 문자를 읽는 독자들에게 매우 중

6) 이에 대해서는 김유범(2010)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한다.

요하며 음성적 정확성이 문자 표기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잘 일깨워 준다. 언어가 음성을 수단으로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간편한 ‘보이지 않는’ 도구라고 한다면, 문자는 이러한 언어의 다양한 정보들을 담아내는 ‘보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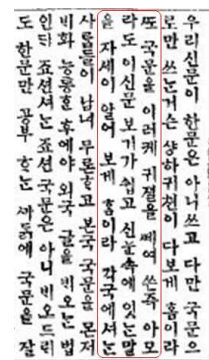
좋은 그릇은 음성과 의미라는 언어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적절하게 잘 담아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겠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릇에 담긴 언어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자 표기에는 언어의 의미 파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론적 정보들이 다양한 장치에 의해 드러나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의 문자 한글(훈민정음)이 지닌 형태론적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4. 한글(훈민정음) 표기의 형태론적 장치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문자들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그 표기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 문자들이 언어의 어떠한 요소를 표기하게 되는가는 문자에 따라 다르며, 같은 언어 단위를 표기하는 문자라 하더라도 실제의 표기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자가 언어의 형태론적 정보들을 드러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the world's best alphabet)’라는 평을 받은 한글(훈민정음)은 표기에서 과연 어떠한 형태론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특정 시기를 한정하지 않고 한글(훈민정음)의 표기 역사 전체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한글(훈민정음) 표기의 형태론적 장치들을 언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본적으로 단어를 중심으로 띄어 쓰는 표기 방식을 통해 형태론적으로 중요한 ‘단어 단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는 많은 문자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한글(훈민정음)만의 독특한 점은 아니다. 그



러나 15세기 중엽에 처음 훈민정음이 쓰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단어는 물론 문장까지도 모두 붙여 쓰는 표기 양상이 오랜 시간 지속되다가 19세기 말에야 오늘날과 같이 띄어 쓰는 양상이 등장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⁷⁾ 그것은 한글(훈민정음)의 경우 띄어쓰기가 근대적 성격을 지닌 장치라는 점으로 처음부터 오늘날과 같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전통적인 한문 문장의 표기 방식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별한 목적으로 대두(擡頭)나 격자(隔字)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자를 붙여 쓰던 전통적인 표기 방식은 새로운 문자의 표기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아무튼 띄어쓰기를 하는 달라진 표기 방식은 단어라는 형태론적 단위를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글의 가독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음으로 단어나 형태소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 이른바 ‘형태음소적 표기’라는 장치를 들 수 있다. 표음문자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자의 하나인 한글(훈민정음)의 기능을 ‘표음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표의적’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장치 덕분이었다. 문자 표기를 소위 ‘소리대로’가 아닌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이 이 장치의 핵심이다. ‘소리’에 충실한 것과 ‘형태’에 충실한 것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기법은 이 두 가지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형태음소적 표기는 표기된 단어나 형태소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형태론적 장치가 된다. 이와 같은 장치는 한글(훈민정음)이 창제된 15세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예들을 통해 당시 이에 대한 인식과 사용의 실재를 볼 수 있다.

(4) 빗꽃 爲梨花 (해례본 훈민정음 중성해)

제 간을 더리 모를씨 들희 쏜 살이 세 날 붉썽 빼여디니 (월인천강지곡 기40)
 討賊이 겨를 업스샤디 선빅를 득스실씨 太平之業이 빛나시니이다 (용비어천가 제80장)

7) 사진은 ‘독립신문’ 창간호(1896)의 논설 중 띄어쓰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처럼 주로 음절 말 자음을 소리가 아닌 본래의 형태대로 표기하는 한글(훈민정음)의 형태음소적 표기 장치는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한자 차자표기의 말음 첨가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면에서 표기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한글(훈민정음)이 다른 문자들과 구별되는 가장 특징적인 형태론적 표기 장치는 이른바 ‘분철’과 ‘연철’이라고 불리는 표기 방식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음소문자인 한글(훈민정음)을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문자의 운용법에서 나타나게 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⁸⁾ 특히 (C)VC.V(C).와 같은 음절 연쇄의 구성에서 앞 음절의 종성을 해당 음절에 그대로 묶어 쓸 것인지, 아니면 (C)V.CV(C).와 같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넘겨 쓸 것인지가 이 장치가 적용된 차이를 보여주는 핵심이다. 현대의 표기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주는 데 이 장치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5) 가름[分]: 갈음[替], 다리다[𪎐]: 달이다[煎], 만드시[必]: 반듯이[正],

이와 같은 장치는 단어를 ‘소리대로’ 표기할 것인가 아니면 본래의 형태를 밝혀 ‘어법에 맞도록’ 표기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을 맺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장치가 현대뿐 아니라 한글(훈민정음)이 창제된 15세기 당시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들이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⁹⁾

8) 음소문자인 한글(훈민정음)을 음절 단위로 모아쓰게 된 이유를 보통 한자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대표적으로 이기문 1963)와 더불어 파스파 문자나 여진 문자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도 찾아볼 수 있다. 참고로 음소문자인 몽고의 파스파 문자의 경우 문자들을 세로로 결합해 하나의 음절을 구성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예로서 한자 ‘蒙’의 음가[mong]를 세 개의 문자 𐨣(m), 𐨮(o), 𐨪(ŋ)으로, ‘古’의 음가[ɣol]를 역시 세 개의 문자 𐨣(ɣ), 𐨮(o), 𐨪(l)로 적어 놓은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9) 아래의 예는 김유범(2007a:87)에서 재인용한다.

- (6) 가. ① ㄷ리[月] : ㄱ리[粉]
 ② ㄴ순[邊] : ㄹ은[弟]
 나. ① 다라[熱] : 달아[異]
 ② 니로되[起] : 닐오되[謂]
 다. ① 그써[劃] : 굵어[牽]
 ② 니소물[續] : 빗오물[扮]

15세기에는 기본적으로 ‘연철’에 의한 표기 방식이 사용되었고, 『월인천강지곡』의 경우 명사나 동사 어간의 말음이 ‘ㄴ, ㄷ, ㄱ’과 같은 유성 자음일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분리하여 표기했다는 것이 당시의 표기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6)의 예들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15세기 국어의 음운체계에 유성 후두 마찰음 ‘ㅇ’[h]을 가정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예들을 음운론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필자는 김유범(2007a)에서 (6)을 포함해 15세기 표기에서 분철의 유형으로 설명해 볼 수 있는 경우들을 ‘특수 분철 표기’라고 지칭하고 형태음운론적 입장에서 이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특히 15세기에 특수 분철 표기로 분류된 유형들은 본 형태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형태론적 고려나 음운 변화의 흔적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고려로 인해 ‘분철’이라는 표기 방식을 취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때 분철 표기는 형태론적 속성이 서로 다른 부류들을 구별해 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표기 장치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 (6)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 (7) 가. ① 명사 ‘ㄷ’에 주격조사가 결합된 ‘ㄷ리’와는 달리 ‘ㄱ리’는 명사 ‘ㄴ’에 주격조사가 결합된 형태이다. ‘ㄴ리’가 아닌 ‘ㄱ리’로 표기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형태론적 장치이다.
 ② 명사 ‘ㄱ’에 보조사가 결합된 ‘ㄴ순’과는 달리 ‘ㄹ은’은 명사 ‘아’에 보조사가 결합된 형태이다. ‘아’가 아닌 ‘ㄹ은’으로 표기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형태론적 장치이다.
 나. ① 용언 어간 ‘달-’에 연결어미 ‘-아’가 결합된 ‘다라’와는 달리 ‘달아’는 용언 어간 ‘다르-’에 연결어미 ‘-아’가 결합된 형태이다. ‘다라’

가 아닌 ‘달아’로 표기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형태론적 장치이다.

- ② 용언 어간 ‘닐-’에 연결어미 ‘-오되’가 결합된 ‘니로되’와는 달리 ‘닐오되’는 용언 어간 ‘니르-’에 연결어미 ‘-오되’가 결합된 형태이다. ‘니로되’가 아닌 ‘닐오되’로 표기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형태론적 장치이다.

다. ① 용언 어간 ‘굳-’에 연결어미 ‘-어’가 결합된 ‘그서’와는 달리 ‘굳어’는 용언 어간 ‘그스-’에 연결어미 ‘-어’가 결합된 형태이다. ‘그서’가 아닌 ‘굳어’로 표기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형태론적 장치이다.

- ② 용언 어간 ‘넙-’에 전성어미 ‘-옴’과 조사가 결합된 ‘니소물’과는 달리 ‘넙옴’은 용언 어간 ‘비스-’에 전성어미 ‘-옴’과 조사가 결합된 형태이다. ‘비소물’이 아닌 ‘넙옴’로 표기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형태론적 장치이다.

(6)의 예들은 공통적으로 체언이나 용언 어간이 ‘CVC’의 구조를 지녔는지 아니면 ‘CVCV’의 구조를 지녔는지에 따라 각각 연철과 분철이라는 서로 다른 표기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CVCV’ 구조를 가진 ‘ㄴㄹ-, 아스-, 다르-, 니르-, 그스-, 비스-’는 마지막의 ‘V’가 중세국어의 무표모음(default vowel) ‘·’나 ‘-’를 가지고 있어 다른 모음들과의 결합에서 항상 탈락될 수밖에 없는 음운론적 환경에 놓여 있다.¹⁰⁾ 이런 이유로 이들의 곡용이나 활용 결과를 분철 방식으로 표기함으로써 이들이 본래부터 ‘CVC’ 구조를 지닌 ‘들, ㅈ, 달-, 닐-, 굳-, 넙-’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6)에 대한 (7)과 같은 이해는 15세기의 표기법이 매우 질서 정연하다는 점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시의 표기법에 형태론적인 고려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¹¹⁾ 연철과 분철의 차이

10) 물론 체언과 용언의 차이로 인해 체언인 ‘ㄴㄹ’, ‘아스’는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곡용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 이 둘은 ‘넙츠스’와 같은 체언과는 달리 항상 두 번째 음절의 ‘·’가 탈락하는 방식으로 곡용하였다. 이는 오히려 ‘·’가 다른 모음과 만나 탈락하는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음운현상을 적용받은 결과라고 이해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유범(2009b) 참조.

11) 이 문제와 관련해 이기문(1963:65-66)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괄호 안의 내용은 필자 보충.

를 활용한 음소문자의 음절적 구현은 국어의 형태론적 특성을 표기에 반영할 수 있는 유용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문자의 운용과 관련해 높이 평가되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한글(훈민정음)은 제자 원리뿐만 아니라 운용 원리에 있어서도 그 어떤 문자도 도달해 보지 못한 고도의 차원을 개척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한글(훈민정음)은 띄어쓰기 표기, 형태음소적 표기, 분철과 연철 표기라는 다양한 형태론적 장치를 지니고 있다. 띄어쓰기 표기를 통해서만 단어 단위를, 형태음소적 표기를 통해서만 단어나 형태소의 정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분철과 연철 표기를 통해서만 형태론적 속성이 서로 다른 부류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문자 표기의 일반적 특성과 더불어 문자 표기가 보여주는 형태론적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글(훈민정음)의 표기, 특히 15세기 표기에 나타나는 형태론적 장치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이를 통해 특히 15세기 훈민정음의 표기에는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형태론적인 고려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새삼 한글(훈민정음)이 문자학적으로 뛰어난 세계적인 문자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왜, 그리고 어떤 점에서 이 문자가 뛰어난 문자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답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도달한 한글(훈민정음)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이 문자가 지닌 가치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 十五世紀에 있어서의 國語의 文字化는 어디까지나 이 第一 原理(各音素와 그 音素의 記號와의 사이의 一對一의 對應關係 one letter per phoneme)를 固守했으며 形態論的 考慮를 철저히 배척하고 있다. 물론 극히 例外的인 경우에 形態論的 考慮에 의한 例도 없지 않으나(龍飛御天歌와 月印千江之曲에 「ㅈㅅㅍㅌ」 등의 終聲을 사용한 것) 이런 考慮의 철저한 排斥이 당시 表記法의 原理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終聲 八字 制限의 通則을 마련한 것은 그 典型的인 例라고 할 수 있다.

글(훈민정음)을 알고 있고, 한글(훈민정음)을 사랑하고, 한글(훈민정음)을 연구하는 모든 이들의 자각과 분발을 촉구한다.

<참고문헌>

- 강신항(2010), 『훈민정음(한글) 창제와 연구사』, 도서출판 경진.
- 권중성(1999), 『문자학개요』, 한국문화사.
- 김민수 외(1997), 『외국인의 한글 연구』, 태학사.
- 김완진(1984),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19.
- 김유범(2007a), 「15세기 문헌자료의 특수 분철 표기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연구」, 『한말연구』 20, 한말연구학회, 73-99.
- 김유범(2007b), 「문헌어의 음성적 구현을 위한 연구(1) -15세기 문헌자료 언해본 『훈민정음』의 ‘어제서문’을 대상으로-」, 『한국어학』 34, 한국어학회, 169-207.
- 김유범(2008), 「‘ㄱ’탈락 현상의 소멸에 관한 고찰 -16세기 이후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23, 우리말학회, 35-55.
- 김유범(2009a), 「텍스트 구성 차원에서 바라본 해례본 『훈민정음』 기술 내용의 몇 문제」, 『한국어학』 43, 한국어학회, 105-124.
- 김유범(2009b), 「형태론적 제약과 음운 현상」, 『국어 형태·의미의 탐색』(홍사만 외 지음), 역락, 229-244.
- 김유범(2009c), 「한국의 한자 차자표기법에 대한 문자학적 조명과 교육 방안의 모색」, 『인간과 문화 연구』 15,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147-172.
- 김유범(2010), 「고대 이집트의 히에로글리프를 통해 본 한국의 차자표기법: 소리보조글자와 말음첨기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어사 연구론』, 도서출판 경진, 503-514.
- 김정대(2004), 「외국 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평가 연구」, 『국어학』 43, 국어학회, 329-383.
- 김정대(2008), 「한글은 자질 문자인가 아닌가?」, 『한국어학』 41, 한국어학회, 1-33.
- 박영준 외(2002), 『우리말의 수수께끼』, 김영사.
- 백두현(2009), 「『훈민정음』 해례본의 텍스트 구조 연구」, 『국어학』 54, 국어학회, 75-107.
- 송기중(2009), 「팍바(Phags-pa 八思巴) 문자와 훈민정음」, 『국어학』 54, 국어학회, 17-74.
- 이근수(1978), 「조선조의 어문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문(1963), 『국어표기법의 역사적 연구』, 한국연구원.
-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현희(1997), 「훈민정음」,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237-253.

- 정 광(2009), 『몽고자운 연구』, 박문사.
- 정우영(1995), 「15세기 국어 문헌자료의 표기법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두상(2009), 『빼기문자에서 훈민정음까지』, 한국문화사.
- 홍윤표(2005), 「훈민정음의 ‘象形而字倣古篆’에 대하여」, 『국어학』 46, 국어학회, 53-66.
- Coulmas, Florian(2003), Writing systems : an introduction to their linguistic analysis, Cambridge, U.K. ; New York ,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ristian Jacq, Le Petit Champollion illustré; 김진경 옮김, 『이집트 상형문자 이야기』, 예문, 1997.
- Daniels, Peter T. & Bright William(1996), The world's writing systems,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es, W. V.(1987), Egyptian Hieroglyphs, British Museum Press.
- DeFrancis, John(1989), Visible speech : the diverse oneness of writing system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De Saussure, F.(1916),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최승언 옮김, 『일반언어학 강의』, 민음사, 1990.
- Dürscheid, Christa(2006), Einführung in die Schriftlinguistik; 김종수 역, 『문자언어학』, 유로서적, 2007.
- Fischer, Steven R.(2001), A history of writing, London: Reaktion; 박수철 옮김, 『문자의 역사』, 21세기북스, 2010.
- Hudson, G.(2000), Essential Introductory Linguistics, Blackwell.
- Loprieno, A.(2004), “Ancient Egyptian and Coptic”,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the World's Ancient Langu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60-217.
- Mark, C. & Bill M.(1998), How to Read Egyptian Hieroglyphs : A Step-By-Step Guide to Teach Yourself; 하연희 옮김, 『대영박물관이 만든 이집트 상형문자 읽는 법』, 루비박스, 2005.
- Michalowski, P.(2004), “Sumerian”,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the World's Ancient Langu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 랜조 로시, How Writing Began, 노래하는나무 옮김, 《문자의 탄생》(예원미디어, 2005)
- Robinson, A., The Story of Writing-Alphabets, Hieroglyphs & Pictograms; 박재욱 옮김, 『문자 이야기』, 사계절, 2003.
- Rossini, S., Hiéroglyphes, Lire et Ecrire; 정재곤 옮김, 『이집트 상형문자, 읽기와 쓰기』, 궁리, 2005.
- Jacques Kinnaer's Hieroglyphs Lessons : www.intervoyager.com/hieroglyph_archives.html
- John Heise's Akkadian language : www.sron.nl/~jheise/akkadian/cuneiform.html
- The Ancient Egypt Site : www.ancient-egypt.org/index.html